

소 교리문답 제19문

1. 오늘의 공부

제 19 문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답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그 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 결과 현재의 모든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꼭 읽어야 할 성구

엡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 제19문의 답을 자녀(학생)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경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전에 TV에서 외국의 어떤 곳은 마실 물이 없어서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을 마시며 생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웅덩이에는 여러 짐승들도 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짐승들이 그 주변에서 똥도 누고 오줌도 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물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도 마실 물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그 물을 떠다가 하루쯤 두어서 더러운 것이 조금 가라앉으면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집집마다 물을 공급해 주는 수도가 있어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마시지 않고 정수기에서 나온 물만 마시고 슈퍼에서 생수를 사다가 마시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비하면 더러운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하는 그곳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밥을 굶어야 하는 일은 없잖아요? 오히려 살찌라 걱정을 하며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에게 비하면 불쌍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어린이도 많고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먹고 자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까요, 불쌍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앞에서 말한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자신을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학교도 보내주셔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혹시 힘들게 학교와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하는 것 때문에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영원토록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이 배운 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가 있는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람들이 불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곳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지옥 간 부자가 불 속에서 괴로워 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불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목이 말랐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① 병 때문에 ② 몸이 늙어서 ③ 사고 때문에 ④ 죄 때문에. 몇 번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물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리고 몸이 늙어가고 사고로 죽는 모든 이유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랍니다.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죽게 되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죽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불쌍한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비참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참

바보 같아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왜 죽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니까 바보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를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일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해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에 타서 죽어 버리면 고통이 끝날 수가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하겠죠? 이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불쌍한 것은 지옥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요? 깨끗한 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마시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람의 죄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 매일 같이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비싼 보석으로 온 몸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가게 된 신자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1) 정리를 위한 질문

① 사람은 왜 죽어야 하나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②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죄 때문에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③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에 타서 죽어 버리면 고통이 끝날 수가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의 실상입니다.

④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왜 불쌍합니까?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비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를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일을 믿을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⑤ 예수 믿는 사람을 복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용서되고 천국에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죄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해 할 수 있어야 천국의 소중함과 복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백성 된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20문 :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답 :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으로 택하시고 은혜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6. 미리 읽을 성구

엡1:4-7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1)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